

잘 나가는 해남 특산물 2제

# 해남고구마 명칭 법적 권리 인정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 독자적 재산권 부여



해남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고구마(사진)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합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남고구마 명칭은 해남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해남고구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쾌거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농·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고구마 재배면적의 33.7%를 차지하는 해남에서는 연간 3만여의 고구마를 생산하고 있다. 해남고구마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웰빙 국민 간식으로 인기가 높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초당옥수수 2모작으로 연중출하

농기센터 실증재배...1.5배 소득 기대



해남군이 초당옥수수(사진) 연중생산을 위한 2모작 실증재배에 나선다.

7일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2모작 실증재배는 7월 하순부터 10월까지 1.45ha 면적에 걸쳐 실시되며 지역 내 7농가가 참여한다. 이번 실증재배는 7월 하순 - 8월 중순까지 시기별로 나눠 심어 적정 정식시기를 시험하는 한편 재식밀도 실증 시험도 실시한다. 또 노지재배 외에도 토양 염류 집적이 많은 밤하박 시설하우스 재배지를 대상으로 초당옥수수 재배 후 토양염류 효과도 같이 실증할 예정이다.

실증재배에 참여한 박병주씨는 "상반기 초당옥수수 조기출하 시범재배로 1.5배의 높은 소득을 올렸다"며 "이번 실증재배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가격이 불안정한 잡곡을 대체할 수 있는 하계 효자작목으로 정착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초당옥수수가 해남군의 틈새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출하 작형개발과 시설재배 등 다양한 실증시험을 통해 고품질 초당옥수수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해남군 '농가기본소득지원제도' 도입 여론수렴 등 거쳐 내년 시행

해남군은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기본소득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남군은 기초자료 분석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9년 사업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계획은 농업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결정하고 군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업관련 단체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은 여름 방학기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 진도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교실 '활발'

취약계층 아동 보전·교육·보호

진도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실시 중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방학기간 동안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전·복지·보호·교육 서비스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전문 강사와 기관 등과 연계해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탐방·문화체험과 공예교실, 미술교실, 경제교육, 건강검진·영양교육, 소방안전교육, 아동권리교육,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초푸드뱅크에서 신선한 빵과 음료를 아동들의 간식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아동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우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여름방학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대상 아동·부모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양기후치유로 힐링하세요"

완도군 시범 프로그램 운영

13~17일 30명 선착순 모집

'해양헬스케어 1번지' 완도에서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완도군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서 해양기후치유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기후치유는 바닷물의 미세한 공기 입자인 해양에어로졸과 바람, 비타민D 생성에 도움을 주는 태양광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호흡기·피부 질환을 치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변 노르딕워킹, 해변 요가, 해변 필라테스, 아쿠아테크, 해양 패들보드 등 5개 분야다.

해변에서 진행되는 특성상 깨끗한 공기가 필수인데 완도는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의 50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가 대상은 지역주민이나 관광객 모두 가능하며 30명 선착순 모집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완도군청 해양수산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특별한 추억도 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세열굴

### "민주·인권·민생경찰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

신종목 완도경찰서장



"민주와 인권, 민생경찰로 힘차게 뛰겠습니다."

지난 6일 제72대 완도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신종목(51) 서장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경찰정신 구현을 다짐하고 군민을 위한 민생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신 서장은 "기본에 충실한 치안활동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군민에게 봉사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여 가

다"고 강조했다.

경북상주출신인 신 서장은 지난 1990년(경찰대 6기) 경찰에 첫발을 디딘 후 서울청 2기동단 부단장과 경찰청 핵안보정상회의 기획단, 경찰청 경비2계장, 울산청 경비교통과장을 역임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진도군 참여자 10일까지 모집

진도군이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40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대상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맞춤형 경영·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다. 개소당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자부담 10%를 포함한다.

공모 자격은 만 18세~39세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061-540-6133)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